

## 다시 절대폭풍이 다가 오는가?\*

### 허 문 영

통일연구원 · 북한연구실장

절대폭풍(Perfect Storm)은 3개의 기상전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한 폭풍을 뜻한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풍비박산 난다. 이는 2003년 5월 한반도 정세를 묘사하던 말이기도 하다. 핵무기 개발의 북한전선과, 선제공격 불사의 미국전선, 이 같은 상황에 무관심한 남한전선의 충돌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다. 다행히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절대폭풍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7기 발사로 다시 태풍이 오고 있다. 적어도 절대폭풍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외교전략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이후 지난 60년간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보여준 외교전략은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균형·편승·돌파·버티기 전략이 그것이다. 균형과 편승 전략은 약소국이 강대국 앞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정책이고, 돌파와 버티기 전략은 북한이 특별히 구사하는 정책이다. 냉전기 북한은 소련·중국과 북방삼각동맹을 맺어 한·미·일 남방삼각관계에 대항하는 균형(Balancing)전략을 구사하면서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1990년 한·소수교와 '92년 한·중수교로 동맹이 흔들리고 한·미·일의 압박에 처하게 되자, 교착상황 타개 차원에서 핵무기개발과 NPT 탈퇴('93)라는 모험을 강행하였다. 이른바 돌파 (Breakthrough) 전략을 취하였다. 이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자,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94)에 동의함으로써 핵무기 포기과 경수로 지원을 주고받는 유화적 편승(Bandwagoning)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다시 강화되자, 김정일정권 공식출범('98)전까지 대외관계를 전면동결하고 내부결속을 통해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버티기(Muddling-through)전략으로 나왔다.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북한은 4개 전략을 선택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북한은 6자회담 교착과 미국의 금융제재 및 인권문제 제기에 따른 경제난과 위신 훼손으로 정권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 하길 원한다. 그러나 미국이 응하지 않자, 돌파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지난 6월 미사일 시위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미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힐 차관보의 방북 거부 등 양자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본도 납치문제로 강경정책을 지속하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군부와 주민들에 대한 강성대국 건설 위용과시를 통해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도는 다목적적이다. 그러나 핵심은 북·미 협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정일정권의 생존 보장이다. 그 방식이 북·미 직접협상 이든, 6자회담 틀내 양자협상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북한의 초기 관심사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보장 여부이다.

\* 이 글은 서울신문 2006년 7월 12일 31면에 실린 시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거를 보면, 낙관도 가능하다. 북한은 '98년에도 미국의 관심을 끌기위해 대포동1호 발사의 돌파전략을 감행하였고, 협상을 통해 미사일실험중단('99)에 동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지도부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정책협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북한 흔들기 전략이 강화될 때, 북한이 제2 미사일발사나 고폭실험 재개와 같이 더욱 강도 높은 돌파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첫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 우선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이다. 단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이다.

둘째, 북한 미사일문제와 북핵문제를 구분된 사안으로 접근하자. 두 문제는 분리된 것도, 일치된 것도 아니다. 하나로 섞어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완전 분리해서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 북한에게는 대화를 통해 김정일정권 붕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과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전달하자. 또한 미·일과는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 중·러와는 평화애호국 입장에서 정책협력을 긴밀히 이뤄, 한반도정세에 대한 우려를 함께 씻도록 하자. 다만 일본 열도의 안보우려는 내부 요인으로 과장된 측면이 크다.

자연의 절대폭풍은 사람이 막을 수 없으나, 안보의 절대폭풍 극복은 우리의 대비에 달려 있다. 아니 평화의 순풍으로 만들어 냉전의 고도 동아시아를 새롭게 할 수도 있겠다.